

한국생약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인쇄인

황인구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2001년 1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43호

희망찬 신사년(辛巳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던 떠들썩함과 요란함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해가 바뀌어 새로운 1년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시점에서 있습니다.

IMF 이후 침체된 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맞은 새천년의 시작은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 속에서 생약업계는 물론이고 우리 생약재배 농민들 모두에게 무척이나 고난(苦難)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약초재배를 업으로 살아가는 전국의 6만 생약재배 농민 여러분께 희망이 되는 한해였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 앞섭니다.

존경하는 생약재배 농민 및 회원 여러분!

최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약의 수요 증가는 물론 생명공학을 기초로 한 식물 유전자원 분야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 할 만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땀 흘려 생산해 낸 생

약재는 더 없이 가치 있고 소중한 자원인 동시에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의 원천(源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채취와 개발,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생약재의 질은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고 자연산 약초 서식지는 급격히 훼손돼 가고 있

신년사



회장
황인구

생약농업 희망 함께 만들어 가자!

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국이나 일본 등 생약재 주요 소비국들 사이에서는 이미 생약산업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고품질 한약재를 생산해 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와 제도개선 등 장기적인 대안책들이 발빠르게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국산 한약재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해 내기 위한 생산분야의 연구와 투자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생산 농민들 스스로도 세계최고

품질의 한약재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신념으로 생명산업의 과수 꾀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생약재배에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생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난해는 농민자가규격 허용 여부를 놓고 그동안 복지부와 긴 줄다리기를 해 왔던 규격화 제도와 관련 생산농민 입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종전에는 부칙조항으로 있던 생산농민 자가규격 허용 내용이 관리규정 안에 명시됨으로서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도 단순 가공 절단 포장하여 한방병의원 등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 것입니다. 모두가 회원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준 덕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넘어가야 할 수많은 과제와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 또다시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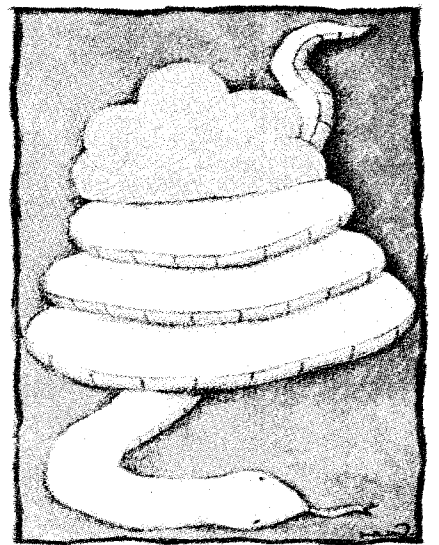
존경하는 생약인 여러분!

또한 정보화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미뤄오기만 했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활용한 회원서비스 강화, 다양한 정보제공, 한약재 직거래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착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6만 생약재배 농민 그리고 회원여러분!

수입개방의 파고 속에서 국산 한약재가 살아남는 길은 진정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생약농업에 희망이 보이는 그런 신사년(辛巳年)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생약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 면 안 내

-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2001년 농림사업 알아보기 3면
- 특별기고/〈동충하초〉을 다녀와서 6면
- 제95차 이사회 이모저모 7면



신비의 버섯 - 동충하초 "환"

한림동충하초 "환"은 국내산 5령누에 번데기만을 배지로 엄선하여 재배한 동충하초에 아가리쿠스, 황기, 복분자, 꿀 등 13가지 한약재를 더 넣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코디세핀산은 혈액속에 들어가 순환하면서 머리의 내압을 내리고 뇌수종을 경감시키며 또한 눈의 내압을 내리는 작용, 이노작용 등을 한다. 또 동충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 다당체는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심장과 간장을 지키며 암을 억제하거나 노화방지에 관여한다."

-(서울대천연물과학연구소 자료제공)